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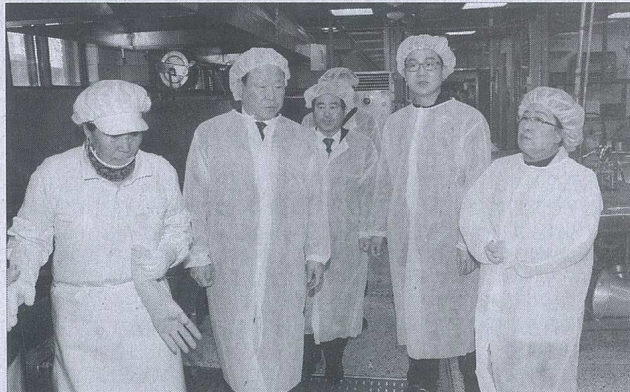
##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송중초교 급식시설 점검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위원 구본승·한동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송중초등학교 급식시설 점검 및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와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강북구청 고한석 행정관리국장, 정연옥 교육지원과장, 김순호 송중동장, 담당 직원과 솔샘지구대 경찰관 등이 함께했으며, 학교측에서는 서석영 교장을 비롯, 교감, 행정실장, 영양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학교 영양사로 부터 급식 및 배식방법과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서석영 교장으로부터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듣고 급식실을 방문하여 시설과 위생 상태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서석영 교장은 “학교전담 경찰관제 운영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거의 없어졌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필요한 안경, 의류, 운동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또한 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운동장 주변 우레탄 보행로 보수와 학교 울타리 방음벽 투명아크릴에 무단 흉보물 부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색아크릴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학교폭력특위 위원들이 송중초교 급식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학생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험군 학생들은 심리치료 및 검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과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은 구청 관계부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 위생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만 있는 교사보다는 부모와 같은 스승이 필요하며, 올바른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동북일보 4면

##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위, 송중초교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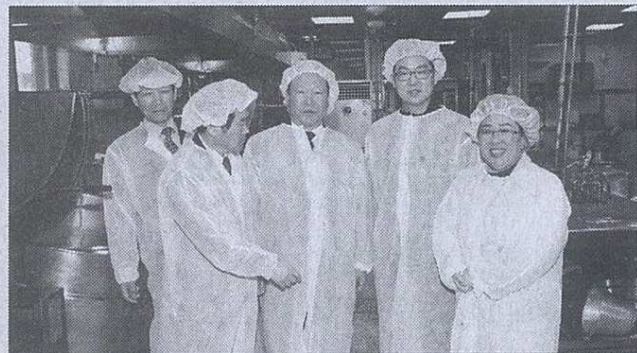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와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실태 파악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위원 구본승, 한동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송중초교 급식시설 점검 및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학교측에서는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영양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양사로부터 급식 및 배식방법과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경청하고 급식실을 방문하여 시설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중초 서석영 교장은 학교전담 경찰관제 운영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거의 없어졌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필요

한 안경, 의류, 운동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운동장 주변 우레탄 보행로 보수와 학교 울타리 방음벽 투명아크릴에 무단 흉보물 부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색아크릴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학생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험군 학생들은 심리치료 및 검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과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은 구청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므로 관계부서 협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 송중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통해 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한동진 의원, 구본승 의원, 김명숙 위원장.

그리고 김명숙 위원장은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 위생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만 있는 교사보다는 부모와 같은 스승이 필요하며, 올바른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위, 송중초 현장 방문 실시

학교폭력 예방 실태 파악하고 급식시설 위생 상태도 점검



▲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송중초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위원 구분승, 한동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급식시설 점검 및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자 송중초교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특위가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와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는 구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 송중동장 및 담당직원

과 솔샘지구대 경찰관이 함께 참여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영양사가 참석해 영양사로부터 급식 및 배식방법과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행정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고 급식실을 방문해 시설과 위생 상태를 확인했다.

송중초 서석영 교장은 “학교전담 경찰관제 운영으로 학교폭력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필요한 안경, 의류, 운동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교 시설과 관련해 운동장 주변 우레탄 보행로 보수와 학교 울타리 방음벽 투명아크릴에 무단 홍보물 부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색아크릴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특위위원들은 학생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험군 학생들은 심리치료 및 검사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고, 저소득층 학생 지원과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은 구청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므로 관계부서 협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명숙 위원장은 “학생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 위생관리를 잘 해주시고,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만 있는 교사보다는 부모와 같은 스승이 필요하며, 올바른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최현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